



꿈과 희망, 사랑과 열정이 있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학교 보건 소식

제 2023- 45호
발행인 : 호남제일고등학교장
편집인 : 보건교사
발행일 : 2023년 9월 가을호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여러 가지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잡힌 식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키웁시다.

9월 9일은 귀의 날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숫자 '구(9)'와 '귀'의 발음이 비슷하며, 귀의 모양과 비슷한 숫자인 '9'를 선택하여 매년 9월 9일을 '귀 건강을 지키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각종 생활소음에 이어폰, 헤드폰 등의 사용으로 청소년의 **소음성 난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예방**이 필수입니다.

건강한 귀를 위한 생활수칙

귀는 청력과 직결된 중요한 기관으로 가벼운 자극으로 도 다칠 수 있고, 세균에 감염되기 쉬워 세심한 주위가 필요합니다.

1. 큰 소음은 최대한 피합니다.
2. 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물놀이 후나 환절기 감기의 합병증으로 주로 생기는 중이염 등에 주의합니다. 중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주기적으로 집 안을 환기하는 등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3. 귀지를 함부로 파지 않습니다. : 귀지는 귓속 세균 침입을 막는 등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무리하게 귀지를 제거하다 고막이나 외이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귀지는 어느 정도 쌓이면 자연스럽게 배출되므로 목욕 후 귀 주변을 가볍게 닦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4. "60-60법칙" 지키기 : 음악을 오래 즐기 위해서 최대음량의 60%이하로 하루 60분 정도만 듣는 "60-60 법칙"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5. 그 외 갑작스런 기압의 변화나 약물의 오남용 등도 난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중이염 예방법



소음성 난청 예방법



9월 10일은 자살예방의 날

자살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자살예방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란?

의욕상실과 우울감으로 인해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 일상기능이 저하되는 증상

우울증의 증상

우울한 기분과 일상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상실
수면장애 - 식욕감소 - 체중저하 - 불안 - 집중력 저하

우울증과 우울감의 차이

환경변화로 인해 증상이 개선되는지 확인하는 것
예) 학교에서 우울하다가도 집에 돌아오거나 친구를 만나서 또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를 잊을 수 있고 기분이 나아진다면 단순한 우울감. 하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고 다른일을 해도 심적으로 계속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 예방법과 극복방법

1.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 찾기
2. 단순작업을 통한 마음의 안정과 정화
3. 근육긴장이완, 화창한 날 야외활동 또는 일광욕
4. 카페인 함유 식품 삼가기

자아존중감 지키는 방법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이란 게 늘 그렇지' 등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기 암시적인 말들은 자아존중감을 낮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열등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났어' 등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고,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참 잘했다'는 칭찬을 하면 자기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유혹에 스스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실패와 좌절에 있어도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가을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가을철 감염병의 종류

특성	쯔쯔가무시증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숙주	야생동물	들쥐, 집쥐	들쥐, 집쥐, 족제비, 여우
경로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 물린 상처를 통해 전염	들쥐 소변 등에 있는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전염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배출된 균이 상처를 통해 전염
증상	두통, 열, 발진, 결막충혈	고열, 두통, 복통	고열, 두통, 오한, 눈의 충혈, 각혈, 근육통, 복통
시기	9~11월	10~12월	9~11월

가을철 감염병 예방관리 요령



1. 산과 들에서는 긴 옷을 입어요.
2.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 않아요.
3. 야외에서 집에 돌아오면 샤워나 목욕을 하고 겉옷,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해요.
4. 야외활동 후 갑작스런 고열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요.

건강한 추석 연휴

벌집 조심

여름철부터 가을까지 기온상승과 폭염으로 인해 벌 쏘임 피해가 급증하는 시기!

- 말벌이 달려들 때는 자세를 낮추고 팔을 휘젓지 말고 움직임을 작게 하고 재빨리 그 장소를 빠져 나간다.



1. 벌집 발견 시 손대지 말고 **119에 연락**.
2. 벌에 쏘였을 때 재빨리 신용카드 등으로 긁어서 **침을 제거**.
3. 상처를 깨끗이하고 **냉찜질**을 30분 정도 해주면 통증이 감소한다.
4. **호흡곤란, 발열** 등의 증상 나타날 때는 **119 신고**하거나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하기.



식중독 예방

- 추석 연휴 차량으로 이동 중 변질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식중독 위험이 높다.



양성평등한 명절 만들기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명절 일을 함께하는 양성평등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를 통해 앞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적응력 및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사일 분담은 명절에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무더웠던 날씨가 갑작스럽게 쌀쌀해지는 환절기, 우리의 몸은 이를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가을은 여름보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제절 음식 섭취